

중학교 음악수업을 위한 북한음악 선호도 분석*

이 성 현** · 최 진 호***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n=194)을 대상으로 북한 음악에 대한 선호도와 반응을 측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북한 음악을 학교 음악교육에 수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들의 북한 음악에 대한 선호도는 통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북한의 음악 양식 중 기악 음악에 대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생활 가요, 신민요, 계몽기 가요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셋째, 북한음악 선호도에 대한 질적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학생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기악 음악과 생활 가요에 대한 선호도 선택 이유에 있어서 친숙함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정적 반응이 많았던 신민요와 계몽기가요의 경우에는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음악이지만 북한 특유의 발성기법에 대한 거부감과 사회문화적 괴리로 인해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음악선호도, 북한음악, 음악교육, 중학생

차 례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 2. 검사 도구 (Questionnaire)
 - 3. 자료 분석 방법 (Data Analysis)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제언

* 본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기초로 작성된 논문임.

** 대평고등학교 음악교사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조교수 / 교신저자(jhc0028@cau.ac.kr)

I. 서론

한국전쟁 이후 분단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게 되면서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최근에는 천안함 침몰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인해 긴장과 대립이 격화되어 왔으며,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북한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전쟁과 같이 급변하는 사태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으며, 남북한의 통일의 문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현재의 당면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통일이 우리의 현실에 가까이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현재의 당면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정은미, 2010), 특히 분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청소년들은 북한에 대한 이질감으로 통일을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추상적인 개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하나, 2008; 이정우, 2008). 이러한 점에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하나의 전통과 가치관을 가진 한민족으로서 민족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여, 미래의 통일한국을 건설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서 문제는 북한에 대해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통일 교육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정치적인 면에서의 통일에 앞서, 정서적인 면, 즉 문화적 통일을 먼저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유지인, 2006; 이도식, 2001). 문화적 화합은 자기중심주의를 배제하고, 자신의 문화를 객관화시키는 상호이해교육을 통해 가능한데, 이러한 상호이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음악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민경찬, 2000; 양종모, 2000; Teo, Hargreaves, Lee, 2008). 예를 들면,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북한 음악을 들음으로써 북한 주민의 삶과 생활 감정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되며, 그들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도 배울 수 있게 된다. 또한 북한의 전통개량악기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음악적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민경훈, 2009; 양종모, 2000), 남한이 가지고 있는 전통음악과의 비교를 통해 상호이해교육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음악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북한 음악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북한음악을 어떻

게 가르쳐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수, 2003; 백하나, 2008).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음악에 대한 선호도와 반응을 측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북한음악을 학교 음악교육에 수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교육에서 북한 음악 수용 및 선호도 조사의 중요성

학교 교육에서 북한 음악의 수용이란 남한의 정규 교과서에 북한 음악을 수록 하거나 학교 정규 음악수업에서 북한 음악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양종모, 2000). 이러한 북한 음악의 수용목적은 순수 음악 교육적 측면과 통일 교육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순수 음악 교육적 측면에서 북한 음악의 수용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여러 문화권의 음악을 폭넓게 수용하도록 한다. 이는 풍부한 음악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수용하도록 하는 현행 음악 교과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교육부, 2015). 다음으로 통일교육적 측면에서 북한음악의 수용은 통일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통일부 통일 교육원에서 배부한 통일교육 지침서(2010)에 따르면, 음악교과에서도 남북문제 및 북한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져야 하며, “남북한 음악을 직접 감상해 봄으로써 동질성과 이질성을 정서적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p. 73)고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음악 교육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다른 문화권의 음악을 소개하고 감상하게 하여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게 되면, 노출된 문화의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게 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애, 2010; 최진호, 2009; Teo, Hargreaves, & Lee, 2008). 이는, 정규 음악 교과과정에서 북한음악을 수용하고 교육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이질감과 부정적 인식에 변화를 주어, 통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남한 학생들의 북한음악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면,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음악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음악 양식과 음악 선호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킴으로써 북한 음악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확인하여, 효과적으로 북한 음악을 수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이영애, 2010; 최진호, 2009;).

한편, 북한 음악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음악을 학교 교육에 수용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먼저 강민지(2008)와 한희정(2003)은 음악교육에 북한음악을 수용할 때에 정치적 성향이 약하여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곡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수용해야한다는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강민지(2008)는 이러한 악곡의 예로 전통음악, 예술가곡, 동요, 월북 혹은 월남 작곡가들이 작곡한 곡과 남북한 연주자들이 연주한 서양의 곡들이 비교적 거부감이 적어 교과서에 도입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한희정(2003)은 북한의 민요와 실기에 사용되는 개량악기를 중심으로 남한의 음악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방안의 예를 제시하였다.

또한, 유지인(2006)은 남북한 음악교육의 동질성 회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남북한 음악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남한에서 불리는 노래이면서 북한의 교과서에 삽입된 곡들을 소개하였는데, 이러한 곡으로 ‘고향의 봄’, ‘반월가(반달)’, ‘그리운 강남’, ‘세간 놀이’ 그리고 남한의 ‘도라지 타령’과 같은 곡인 ‘황금 산의 백도라지’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음악에서부터 수용을 시작해야한다고 하였으며, 이외에도 정치적 사상이 배제된 음악이나 함께 부르고 있는 곡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남·북한이 같이 부르는 노래는 그 자체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긴장완화에 도움을 주며, 분단으로 말미암아 이질화되었던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음악을 학교 음악수업에 수용할 때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민경찬, 2000).

2. 북한 음악의 특징 및 종류

1) 북한 음악의 성격 및 특징

북한은 음악에 사상적 특징을 담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음악을 “자주성과 창조성, 그리고 의식성 등 3대 속성을 지닌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영위하고 있는 현실을 소리로서 형상화시켜 반영하는 예술”(김문환, 1990, p. 198)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3대 속성과 사회적 현실을 구성 원리로 하여 나타난 사상이 바로 북한의 주체사상이다. 김정일(1992)은 그의 저서인

음악예술론에서 주체음악이란 “새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 대중의 지향을 그 내용과 형식에서 철저히 구현한 새 형의 음악예술”(p. 4)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북한이 음악의 본질적 아름다움이나 가치를 추구하려는 형식주의(Formalism)적 특징보다는 음악을 사상 교양을 위한 도구로 보는 관련주의(Referentialism)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하면, 북한 음악에서 추구하는 좋은 음악은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가진 음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2014).

이러한 북한의 음악은 사상과 정서에 맞고 혁명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하며, 민족의 생활감정과 정서적 특질을 반영한 음악인 민족음악 위주로 발전시켜야만 음악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북한의 민족음악은 민족 고유의 특질을 지닌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연주형식이나 반주 등을 현재 인민의 사상과 정서에 맞게 발전시켜 북한 특유의 음악을 창조하기에 이르렀고, 민요의 발굴과 재형상화, 민족 특유의 발성과 주법의 발전 및 악기의 개량 사업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전통적인 민속음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보다는 북한 사상에 적합하게 변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남한의 음악은 관련주의적인 음악도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메시지의 전달과 같은 음악의 수단적 가치보다는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형식주의적 관점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이 주체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 보다 명료한 가사전달을 위한 주체발성법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남한은 음악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때로는 거친 발성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전통음악에 있어서도 옛 소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의 추구한다는 점에서 북한음악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2) 주체적 발성법과 악기의 개량

먼저 성악음악에서 주체적 발성법이란 “주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에게 맞게 개발된 북한식 발성법을 말한다.”(황준연 외, 2002, p. 260) 즉, 현대적 미감에 적합하고 인민들의 민족적 정서에 맞도록 한 발성법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 발성법의 토대가 되는 것이 김일성의 교시이다. 1961년에 김일성이 남도의 판소리와 같은 굵고 구성진 소리를 ‘탁성’, 혹은 ‘쌩소리’라고 비판하여, 이후 북한의 발성은 서정적이고 콧소리가 나는 서도 소리만을 중시하게 되었다(양종모, 2000). 한상우(1989)는 그의 저서인 ‘북한 음악의 실상과 허상’을 통해 북한

의 발성이 “우리나라 초기 유행가의 가수들에서 볼 수 있었던 옹고 가냘픈 그리고 약간의 비브라토가 섞인 묘한 소리를 만들고 있다(p. 103)”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창법이 나약한 북한 주민이 절대자인 김일성을 찬양한다는 의미와 연결된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맑은 소리는 가사의 전달을 보다 명료하게 하여 사상을 전달하고자 하는 북한 음악의 특성에도 적합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가창법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은 성악뿐만 아니라 민족 전통악기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족 악기의 개량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1956년 이후 민족음악 위주로 양악을 통합시킨다는 주체 철학의 원칙 아래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 들어서서 실용화되게 되었다(황준연 외, 2002). 또한 악기에도 성악 발성법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서도소리와 같은 ‘맑고 유순한 소리’를 추구하였는데, 예를 들어 다소 탁하고 거친 음색의 태평소는 보다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음량을 줄이고 음역을 넓혀, 부드러우면서도 표현력이 풍부한 악기로 개량한 것이다. 이렇게 개량된 악기가 바로 장새납이며, 이로써 독주, 중주, 합주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처럼 악기 개량과정 중에 음색을 맑게 내기 위하여 가야금과 같은 현악기는 전통적인 명주실에서 철줄로, 관악기의 재료는 쇠로 교체하게 되었다(김문환, 1990). 또한 5음 음계로 된 전통음악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12반음의 서양 평균율로 조율하여 7음계의 서양 음악도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떠한 복잡한 곡도 자유자재로 전조와 이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양악기와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조은혜, 2005). 북한은 이를 민족 악기에 의한 현대적 미감의 실현이라고 보았다. 그 밖에도 북한의 개량악기는 음역을 훨씬 넓히고 같은 종류의 악기라도 여러 가지 음역을 각자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종류도 다양화하였으며(조은혜, 2005), 독주 때에도 더욱 기교를 부릴 수 있도록 페달을 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량 악기에는 ‘해금, 장새납, 옥류금, 새납속악기, 양금, 대피리, 가야금, 저대, 단소’ 등이 있다(한상우, 1989, p. 152).

3) 북한 음악의 종류

북한은 음악의 종류와 형식을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음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발전이 시대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김정일, 1992). 먼저, 북한의 음악은 표현수단과 방식에 따라 크게 성악과 기악의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은 내용과 의도를 쉽게 이

해할 수 있고 대중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부를 수 있는 성악음악을 기악음악보다 더 중요시 하고 있다. 북한에서 가요는 흔히 성악곡의 총칭으로도 쓰이는데, 대중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 이 가요의 발전이 곧 북한 음악의 혁명적 사명과 역할을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이현주, 2006).

성악은 연주 형태에 따라 독창과 합창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음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먼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국광복을 위해 사명을 감당한 혁명투사들의 정신세계를 선율로 담은 혁명가요와 당과 수령을 찬양하는 노래인 송가가 있다. 또한 노래를 통하여 사람들을 혁명투쟁으로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곡인 행진가요가 있는데, 이 행진가요의 가사는 그 의도에 맞게 혁명성이 뚜렷하면서도 형상적으로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장기범, 2003).

사상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위의 가요들과는 이례적으로 남한의 대중가요와 유사한 모습의 서정가요도 존재한다. 김정일(2003)의 음악예술론에 따르면, 서정가요는 북한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믿음과 창조의 열정, 혁명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서정가요의 초기에는 송가와 비슷하게 애국적인 내용을 담거나 아름다운 자연을 소재로 하여 수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많았으나 점차 연애감정을 비롯한 다양한 감정을 주제로 하는 곡이 많아지면서 생활 가요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생활가요는 제 2차 문예혁명 시기에 제기되어 생겨난 것으로, “인민이 누구나 다 흥얼거리며 따라 부를 수 있는 명곡과 생활 철학이 담겨있고 정서가 풍문하고 통속성이 구현된 시대의 명곡들을 창작하라”(민경찬, 2000, p. 3)는 창작 방침에 맞추어 부르기 쉽게 작곡된 곡이다. 이 밖에도 노동의 기쁨과 생활의 보람을 심어주는 노동가요와 무곡가요가 있다.

김정일(1992)의 음악예술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성악의 종류에는 가요 외에도 민요가 불리고 있다. 이현주(2006)에 의하면 민요는 가요의 개념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종류의 성악곡에도 모두 속할 만큼 비중이 높은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민요가 우리와 다른 점은 전통적인 민요 외에 새로 작곡된 민요풍의 노래도 민요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래로 민족 수난기에 새롭게 창작된 ‘신민요’와 해방 이후 새롭게 작곡된 ‘민요식 노래’가 있다. 북한에서는 민요를 옛 형태 그대로 유지하려는 남한과는 달리 시대에 맞게 재창조하는 것을 바람직한 전승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모두 별다른 구별 없이 ‘민요’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소영, 2009).

다음으로 기악부문은 주로 연주형태로 나뉘게 되는데, 구조가 간결하고 규모가 작아 어디든 연주 가능한 기악소품과 독주악기의 특성을 살려 창작된 기악독주곡이 있으며, 말 그대로 실내에서 연주하는 음악을 의미하는 실내악이 있다. 실내악은 작은 연주무대에서뿐만 아니라 큰 무대에서도 연주 할 수 있는 기악중주 형태로, 이러한 기악중주는 편성을 다양하게 하되 원곡 및 중주로서의 특징을 잘 살려 연주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민족기악중주에 있어서도 가야금, 옥류금을 포함하여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향악분야에는 교향곡, 관현악곡, 협주곡 및 관현악 조곡 등이 있으며, 여기서도 교향곡이 유럽의 음악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북한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체적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악음악분야에는 경음악이 있다. “경음악은 말 그대로 가벼운 음악으로써 실내악이나 교향악과 구별되는 대중음악의 한 종류이다”(김정일, 1992, p. 127). 경음악은 리듬이 아닌 선율을 살려야 하며, 경음악에 맞는 곡의 선정과 함께 그 특성을 살려 재밌고 가볍게 편곡할 것을 밝히고 있다.

성악과 기악 외에도 혼합으로 분류되는 ‘<피바다>식 가극’이 있는데, 이는 북한이 그들의 주체적 문예 사상을 가장 빛나게 구현시킨 음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모든 장르의 음악 안에 사상적인 의미를 담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북한 음악 중에서도 사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르를 살펴보면 생활가요와 민요, 가사가 없는 기악음악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북한의 음악의 종류는 다음 <표 1>로 정리해볼 수 있다.

<표 1> 북한 음악의 종류

분류	하위 종류	
성악 (가요)	가요	혁명가요, 송가, 행진가요, 서정가요, 노동가요, 무곡가요
	민요	전통민요, 신민요
기악	기악소품, 기악독주곡, 실내악(기악중주, 민족기악중주), 교향악(교향곡, 관현악곡, 협주곡, 관현악 조곡), 경음악	
혼합	<피바다>식 가극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M중학교에 재학 중인 194명(n=194)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음악에 대한 태도와 선호도를 조사해 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질적·양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고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분석하는 병렬적/동시적 주-부 패러다임 통합방법설계(Simultaneous dominant less dominant mixed method designs)”(성태제, 시기자 2010, p. 35)를 사용하여 중학교 학생들의 북한음악 선호도를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본 연구는 설문지를 배부하고 질문에 응답하게 하는 일반적인 조사연구와는 달리, 음악을 듣고 그 반응을 측정하는 실험연구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실험연구와 같이 접촉이 가능한 집단을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성태제(2010)는 “실험연구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연구대상을 각지에서 추출할 수 없으므로 연구자가 접촉이 가능한 집단을 선정”(p. 238)하여 연구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를 위해 10개 이상의 학교에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2개 학교만이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그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을 측정할 수 있는 M 중학교를 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나머지 D 중학교는 검사 도구를 위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는 학교로 구분하였다. 선호도 조사는 M 중학교 정규음악 시간에 담당 음악교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학급마다 동일하게 설치된 PC와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듣고 그 반응을 측정하였다.

먼저 선호도 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의 성별은 여학생이 99명(51%), 남학생이 95명(49%)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참가자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관심이 보통수준’인 학생이 102명(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관심이 있다’가 46명(24%), ‘관심이 없다’가 45명(23%)으로 절반 이상의 학생이 통일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09명(56%)으로 가장 많았지만, ‘통일이 안 되는 것이 낫다’가 56명(29%), ‘통일이 되든 아니든 상관없다’가 29명(15%) 순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학생이 통일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보통수준’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111명(57%)으로 가장 많았고, ‘잘 모른다’가 67명(35%), ‘잘 안다’가 15명(8%)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음악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한 학생이 153명(79%), 보통이

라고 응답한 학생이 40명(21%)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북한음악을 잘 안다고 응답한 학생은 1명에 불과해 북한음악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검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 도구인 North Korean Music Preference Inventory (NKMPI)는 총 25문항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북한 음악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부분으로 총 20곡의 북한음악으로 구성되었다. 예제 곡들은 북한의 사상적 가치를 드러내는 곡들은 배제하고, 최대한 남한 학생들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는 곡들로 선정되었는데, 한국 전통 음악을 북한에 적합하도록 만든 ‘신민요’ 5곡, 일제 강점기에 유행한 ‘계몽기 가요’ 5곡, 북한의 가요 중에서 사상성이 드러나지 않는 ‘생활 가요’ 5곡,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악이 아닌 악기만을 사용하여 연주한 ‘기악 음악’ 5곡으로 구성되었다(표 2). 또한 예제 곡 중 5곡은 남한에서 발매된 북한음악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15곡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였다.

<표 2> 북한음악 예제 곡 목록*

순서	제목	양식	특징
1	아리랑*	신민요	원형 그대로를 살린 신민요
2	고향의 봄*	계몽기 가요	동요
3	반갑습니다	생활가요	보천보전자악단(리경숙)
4	룡강기나리 (용강 기나리)	기악음악	평안도 민요 ‘용강 기나리’의 개량악기 “장새납” 연주
5	노들강변*	신민요	원형 그대로를 살린 신민요
6	반월가*(반달)	계몽기 가요	동요
7	휘파람	생활 가요	보천보전자악단(전혜영)
8	황금산의 백도라지* (도라지 타령)	기악음악	개량악기 “옥류금” 연주
9	옹헤야*	신민요	가사를 개작한 신민요
10	동무 생각*	계몽기 가요	예술가요

* 표시한 곡은 남·북이 공유하는 음악으로서, 제목이 다른 경우 남한에서의 제목을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권오성 외, 2001).

순서	제목	양식	특징
11	심장에 남는 사람	생활 가요	왕재산경음악단
12	평양의 봄	기악음악	개량악기 “21현 가야금” 연주
13	맑은 아침의 나라* (이팔청춘가)	신민요	주제·제목·가사 변경
14	눈물 젖은 두만강*	계몽기 가요	대중가요
15	평양랭면 제일이야	생활 가요	텔레비전 연속극 “옥류풍경” 중에서
16	돈돌라리* 협주곡	기악음악	함경도 민요 “돈돌라리” 선율을 사용한 피아노 협주곡
17	바다의 노래* (배놀이)	신민요	선율까지 바꾼 신민요
18	황성 옛터*	계몽기 가요	대중가요
19	김치 깎두기	생활 가요	보천보전자악단 (리경숙)
20	행복한 내 나라	기악음악	경음악

각각의 예제 곡은 35초 동안 동일하게 청취하도록 되어있으며, 1번 음악 예제 재생 후부터 각 곡의 간격마다 30초의 동일한 휴지 간격이 주어졌다. 각 음악 예제가 재생되기 3초 전에는 곡의 문항 번호를 알리는 내레이션(Narration)이 삽입되어 있으며, 내레이션을 포함하여 음악 예제의 총 길이는 21분 15초로 제작되었다. 각 문항은 숫자평정척도에 의한 선택형과 자유 반응형의 두 가지 방식으로 함께 제시하였다. 응답자가 먼저 북한 음악 예제를 듣고 각 예제 곡에 대한 선호도를 5단계 라이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여 “매우 싫다=1, 싫다=2, 보통이다=3, 좋다=4, 매우 좋다=5”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후에 자신의 선호도 선택 이유와 그 곡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을 제시된 개방형 빈칸에 10자 이상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 다음 설문지의 두 번째 부분은 참가자들의 개인적 배경과 북한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성별을 묻는 객관식 1문항과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묻는 객관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배경과 북한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을 북한 음악 선호도 문항 뒤에 배치한 것은 북한의 태도를 묻는 문항이 북한 음악 선호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를 위해 탈북자 출신의 북한음악전문가 1인, 음악교육학 박사 1인, 현직 음악교사 1인으로 구성된 3명의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측정하여 검사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연구 대상과 동일한 연령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에게 필드

테스트를 실시하여 검사 도구를 보완하였다. 이후,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D중학교 1학년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alpha=.80$)가 확립되어 본 검사 도구가 북한음악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북한음악에 대한 중학생들의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SW Statistics 18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NKMPI* 검사 도구 분석을 위해 각 참가자들이 설문지에 표시한 20개 음악예제의 점수를 합산하였다. 각 참가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호도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으로 북한음악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응답한 질적 데이터는 “질적 연구 분석방법의 하나인 코딩(Coding Segments)작업을 거쳐 각 참가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후, 비슷한 카테고리 분류하여 정리(Grouping Category Segments)하였다”(최진호, 2010b, p. 161).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답 결과는 크게 정서적 반응과 음악 분석적 반응의 두 부분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으며, 이 2가지 항목들은 각각 긍정적 반응, 부정적 반응으로 분류하여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긍정적-부정적 반응으로 분류할 때, 긍정적 형용사를 사용한 응답은 긍정적 반응으로, 부정적 반응을 사용한 응답은 부정적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그 외에도 긍정·부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템포, 분위기, 음악 양식에 관한 응답이 있었는데, 먼저 빠르기에 관한 응답은 김연정(2000)의 연구에 근거하여 ‘빠르다’는 긍정적 반응으로, ‘느리다’는 부정적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미향(2004)의 연구에 근거하여 익숙한 음악과 익숙하지 않은 음악을 각각 긍정적, 부정적 반응으로 분류하였는데, 친숙한 음악으로는 영화 음악, 만화주제가, 크리스마스 캐럴, 뮤지컬 음악 등이 포함되며 익숙하지 않은 음악으로는 트로트와 다른 나라의 음악이 포함된다.

두 번째 부분은 성별 및 통일에 대한 태도를 묻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에 따라 구분된 세 집단(통일에 매우 관심 있다, 보통이다, 관심 없다)간, 북한 음악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 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통일에 대한 관심에 따른 북한 음악 선호도 결과

본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세 가지 태도(매우 관심이 있다, 보통이다, 관심이 없다)로 나누어 조사해 보았다. 먼저, 통일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 집단의 선호도 평균($M=3.00$; $SD=.5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수준의 관심이 있는 학생집단의 평균($M=2.83$; $SD=.47$)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한 학생들의 평균($M=2.59$; $SD=.60$)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통일에 대한 관심에 따른 세 집단 간의 북한 음악 선호도 평균

통일에 대한 관심	북한 음악 선호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매우 관심이 있다	46	3.00	.55
보통이다	102	2.83	.47
관심 없다	45	2.59	.60

다음으로 통일에 대한 세 가지 태도에 따라 북한 음악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 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한 결과, 통일에 대한 관심에 따른 세 집단 간에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F(2, 190)=7.17$, $p<.01$)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일원분산분석(One 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통일에 대한 관심에 따른 세 집단 간의 북한음악 선호도 평균

	df	SS	MS	F
음악선호도	2	3.85	1.93	7.17**
오차	190	51.05	.27	
합계	192	54.90		

** $p<.01$

다음으로 각 집단에 대한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Tukey HSD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5>에서와 같이, ‘통일에 매우 관심이 있다’와 ‘보통이다’라고 밝힌 그룹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밝힌 그룹과 북한 음악에 대한 선호도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 음악에 관심이 있는 그룹이 관심이 없는 그룹에 비해 북한 음악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5> Tukey HSD의 사후분석(Post Hoc Test): 통일에 대한 관심에 따른 북한 음악 선호도 평균의 차이

Tukey HSD ^{a,b}			
남·북 통일에 대한 관심	N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집단	
		1	2
관심 없다	45	2.59	
보통이다	102		2.83
매우 관심이 있다	46		3.00

2. 장르별 북한 음악 선호도 결과

다음의 <표 6>은 음악장르별 북한 음악 선호도 결과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내림차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대상인 남한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북한 음악 중에서도 기악 음악에 가장 큰 선호도(M=3.35; SD=.70)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생활 가요(M=3.02; SD=.75), 신민요(M=2.53; SD=.6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몽기 가요가 평균 2.37(SD=.66)점으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장르별 북한 음악 선호도 결과

장르	평균	표준편차	제목	평균	표준편차
기악음악	3.35	.70	황금산의 백도라지	3.58	1.09
			행복한 내나라	3.54	1.08
			돈돌라리 협주곡	3.41	1.08
			평양의 봄	3.32	1.06
			룡강기나리	2.91	1.09

장르	평균	표준편차	제목	평균	표준편차
생활가요	3.02	.75	반갑습니다	3.29	1.06
			김치깍두기 노래	3.29	1.28
			휘파람	3.07	1.16
			평양랭면 제일이야	2.86	1.19
			심장에 남는 사람	2.61	1.14
신민요	2.53	.68	아리랑	2.77	1.07
			옹헤야	2.70	1.10
			노들강변	2.46	.99
			맑은 아침의 나라	2.39	.94
			바다의 노래	2.31	.97
계몽기 가요	2.37	.66	고향의 봄	2.80	1.01
			동무생각	2.34	1.04
			반월가	2.26	1.12
			황성옛터	2.24	.95
			눈물 젖은 두만강	2.21	.98
합계	2.82	.53		2.82	.53

다음으로 학생들이 북한 음악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적은 질적 응답 (Qualitative Response)들을 코딩작업을 통해 정서적, 음악 분석적 반응으로 분석한 후, 긍정적-부정적 반응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온 기악 음악과 생활가요에서는 학생들의 긍정적 응답이 더 많았으며, 선호도가 낮은 신민요와 계몽기 가요에는 부정적 반응이 긍정적 반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기악 음악

먼저 <표 7>를 살펴보면 기악음악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서는 ‘신이 난다’가 긍정적 반응으로서 가장 많이(n=111) 나타났으며, ‘우리 음악과 비슷하다(n=93)’, ‘경쾌하다(n=62)’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부정적 반응으로는 ‘다른 나라 음악 같아서 이상하다(n=6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신없다(n=47)’, ‘이상하다(n=36)’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음악 분석적 요소에서의 긍정적 반응으로는 ‘악기 소리가 좋다(n=87)’, ‘연주를 잘한다(n=35)’, ‘노래가 없어서 좋다(n=23)’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반응으로는 ‘노래가 없어서 싫다(n=21)’, ‘시끄럽다(n=16)’ 등으로 나타났다.

<표 7> 기악 음악에 대한 정서적·음악 분석적 반응

	긍정적 반응	빈도(f)	부정적 반응	빈도(f)
정서적 반응	신이 난다	111	다른 나라 음악 같아서	68
	우리 음악과 비슷하다	93	이상하다	
	경쾌하다	62	정신없다	47
	밝다	35	이상하다	36
	듣기 편안하다	32	재미없다	32
	평화롭다	27	특이하다	22
			우리 세대와는 맞지	14
	재미있다	26	않는 음악이다	
	매력이 있다	20	듣기 거부하다	10
	맑다	18	우리를 따라 해서 싫다	8
	친숙하다	17	옛날 음악 같아서 싫다	6
	신비스럽다	16	우리 음악과 달라서	5
	웅장하다	13	이상하다	
	세련되다	10	이해하기 힘들다	3
	기타	5	촌스럽다	2
음악 분석적 반응			답답하다	2
	악기 소리가 좋다	87		
	연주를 잘한다	35		
	노래가 없어서 좋다	23	노래가 없어서 싫다	21
	멜로디가 좋다	19	시끄럽다	16
	크리스마스 캐럴 같다	10	연주를 못 한다	4
	만화 주제가 같다	10	소리가 이상하다	4
	클래식 같다	7	느리다	3
	영화음악 같다	6	고음이라 싫다	2
	튀기는 연주법이 좋다	6	기타	4
	고음이 멋있다	4		
	기타	2		

2) 생활 가요

다음의 <표 8>은 학생들의 생활 가요에 대한 질적 응답의 분석 결과이다. 먼저, 정서적 반응에서는 ‘신이 난다(n=208)’와 ‘재미있다(n=182)’가 긍정적 반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친숙하다(n=76)’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 반응으로는 ‘듣기 거부하다(n=50)’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 분석적 요소에서의 긍정적 반응으로는 ‘가사가 좋다(n=39)’, ‘발라드

같다 (n=24)', '만화 주제가 같다(n=21)' 등의 응답이 많았으며, 부정적 반응으로는 '트로트 같아서 싫다(n=49)', '목소리가 싫다(n=43)', '가사가 싫다(n=42)' 등의 응답이 많았다.

<표 8> 생활 가요에 대한 정서적·음악 분석적 반응

	긍정적 반응	빈도(f)	부정적 반응	빈도(f)
정서적 반응	신이 난다	208	듣기 거부하다	50
	재미있다	182	이상하다	29
	친숙하다	76	옛날 노래 같아서 싫다	26
	경쾌하다	52	다른 나라 음악 같아서	15
	밝다	48	싫다	
	매력 있다	19	유치하다	15
	우리 음악과 비슷하다	14	특이하다	14
			경박하다	10
	듣기 편안하다	10	우리 세대와 맞지	9
	힘이 있다	7	않는 음악이다	
	신비롭다	6	우리과 달라서 이상하다	9
	조용하다	5	촌스럽다	6
	기분이 좋아짐	5	신나지 않다	5
	귀엽다	3	재미없다	4
	남·북이 함께 부르면	2	표절한 것 같다	4
	좋을 것 같다		장난하는 것 같다	4
	기타	4	정신없다	4
			기분 나쁘다	3
			기타	13
음악 분석적 반응	가사가 좋다	87	트로트 같아서 싫다	49
	발라드 같다	35	목소리가 싫다	43
	만화 주제가 같다	23	가사가 싫다	42
	목소리가 좋다	19	창법이 싫다	18
	가사 전달이 잘된다	10	남자 목소리가 싫다	17
	노래를 잘한다	10	발음이 이상하다	15
	노래가 좋다	7	가사 전달이 안 된다	14
	반주가 마음에 든다	6	고음이 싫다	9
	가요 같다	6	노래를 못 한다	5
	음악적 요소가 조화롭다	4	코러스가 별로다	4
	남자목소리 멋있다	2	시끄럽다	4
	기타			

(3) 신민요

다음의 <표 9>는 학생들의 신민요에 대한 질적 응답 분석 결과이다. 먼저, 정서적 반응에서는 ‘재미있다(n=53)’, ‘신이 난다(n=43)’, ‘우리과 비슷하다(n=40)’가 가장 높은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 반응으로는 ‘재미없다(n=57)’, ‘이상하다 (n=52)’, ‘짜증이 난다(n=4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9> 신민요에 대한 정서적·음악 분석적 반응

	긍정적 반응	빈도(f)	부정적 반응	빈도(f)
정서적 반응	재미있다	53	재미없다	57
	신이 난다	43	이상하다	52
	우리과 비슷하다	40	짜증이 난다	42
	웃기다	31	듣기 거부하다	38
	친숙하다	28	특색이 있다	29
	밝다	18	우리과 달라서 이상하다	24
	평온하다	17	다른 나라 음악 같아서	21
	매력 있다	15	싫다	19
	경쾌하다	15	옛날노래 같다	16
	신비하다	6	촌스럽다	16
	듣기 편하다	6	우리를 따라 해서 싫다	11
	맑다	3	우리 세대와 맞지 않다	10
	기분이 좋아 진다	2	신나지 않다	8
	힘이 있다	2	강제적인 느낌이 난다	6
	기타	2	가식적으로 부른다	5
			답답하다	4
			유치하다	3
음악 분석적 반응			기타	
	목소리가 좋다	13	가사 전달이 안 된다	91
	멜로디가 좋다	11	목소리가 싫다	75
	가사가 좋다	10	고음이 싫다	66
	화음이 좋다	7	콧소리가 심하다	50
	뮤지컬 음악 같다	6	트로트 같다	31
	높은 음을 잘 부른다	5	창법이 이상하다	29
	소리가 조화롭다	5	발음이 이상하다	26
	노래를 잘 한다	5	시끄럽다	18
	합창이라 좋다	4	노래를 못 한다	10
	오페라 같다	4	가사가 싫다	10
	고음이 돋보인다	4	소리가 조화롭지 않다	5
	창법이 좋다	2	반주가 싫다	4
	기타	11	목소리 기교가 심하다	3
			기타	5

또한 음악 분석적 요소에서의 긍정적 반응으로는 ‘노래 음이 좋다(n=13)’, ‘가사가 좋다(n=11)’, ‘목소리가 좋다(n=10)’ 등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반응으로는 ‘가사 전달이 안 된다(n=91)’, ‘목소리가 싫다(n=75)’, ‘고음이 싫다(n=66)’ 등의 응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4) 계몽기 가요

다음의 <표 10>은 학생들의 계몽기 가요에 대한 질적 응답의 분석 결과이다. 먼저, 정서적 반응에서는 ‘친숙하다(n=44)’와 ‘밝다(n=42)’가 긍정적 반응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듣기 편하다(n=35)’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 계몽기 가요에 대한 정서적·음악 분석적 반응

긍정적 반응		빈도(f)	부정적 반응		빈도(f)
정서적 반응	친숙하다	44			
	밝다	42	재미없다		83
	듣기 편안하다	35	짜증이 난다		51
	신이 난다	23	듣기 거부하다		41
	우리과 비슷하다	20	가식적이다		29
	고요하다	17	우리를 따라 해서 싫다		13
	재미있다	15	답답하다		11
	경쾌하다	13	복잡하다		7
	웃기다	6	촌스럽다		6
	감동적이다	6	신나지 않다		5
	맑다	5	슬프다		5
	아름답다	3	옛날음악 같아서 싫다		2
	고급스럽다	3	기타		17
	기타	2			
음악 분석적 반응			목소리가 이상하다		82
			고음이 싫다		40
	목소리가 좋다	22	가사 전달이 안 된다		35
	멜로디가 좋다	15	콧소리가 심하다		27
	잘 부른다	6	창법이 싫다		25
	화성이 좋다	2	발음, 억양이 이상하다		21
	소리가 조화롭다	2	느려서 싫다		12
	가사가 좋다	2	가사가 싫다		6
			트로트 같아서 싫다		6
			음정이 이상하다		3
			음이 싫다		3

반면에 부정적 반응으로는 ‘재미없다(n=8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짜증이 난다(n=51)’, ‘듣기 거부하다(n=41)’의 순서로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음악 분석적 요소에서의 긍정적 반응으로는 ‘목소리가 좋다(n=22)’, ‘멜로디가 좋다(n=15)’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목소리가 이상하다(n=82)’, ‘고음이 싫다(n=40)’, ‘가사 전달이 안 된다(n=35)’ 등의 이유로 부정적 반응을 더 높게 나타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음악에 대한 선호도 및 반응을 측정하고 북한 음악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해보므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북한 음악을 학교 음악교육에 수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에 대한 태도에 따른 북한 음악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일에 대한 관심에 따라 북한 음악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통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북한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음악 선호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최진호, 2010a). 이러한 사실은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일수록 북한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음악수업시간에 북한 음악을 남한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수용하는 것이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 간격을 좁히고 앞으로 있을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남한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기악 음악에 대하여 가장 큰 선호도($M=3.35$; $SD=.70$)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생활 가요($M=3.02$; $SD=.75$), 신민요($M=2.53$; $SD=.68$)가 그 뒤를 이었고, 계몽기 가요($M=2.37$; $SD=.66$)가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전통 음악이나 분단 이전의 음악들이 비교적 거부감이 적을 것이라는 선행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이었다(강민지, 2008; 유지인, 2006). 이를 분석해 보면, 남북한 학생들이 모두 전통음악이나 계몽기 가요 등은 현재 감상하고 있는 음악과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성악의 경우, 북한식의 특이한 발성으로 남한 학생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떨어졌고, 사상이나 발성 등과는 상대적으로 음악 양

식적 차이가 적은 기악음악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음악을 남한 교과과정에 수용할 때, 기악음악을 먼저 학생들에게 감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북한음악에 대한 질적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학생들이 기악음악과 생활 가요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크게 보인 이유는 친숙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악음악과 생활 가요에 대한 학생들의 정서적 반응 중 긍정적인 응답들을 살펴보면, ‘신이 난다(n=111)’, ‘우리음악과 비슷하다(n=93)’, ‘경쾌하다(n=62)’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남한 아이들이 경쾌하고 빠른 리드미컬(Rhythmical)한 음악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를 우리음악과 비슷하다고 느낀다는 점에서 역시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귀에 익은 친숙한 음악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의 부정적 반응이 많았던 신민요와 계몽기 가요의 경우, 남북이 공유하는 음악이지만, 북한 특유의 발성기법에 대한 거부감과 사회문화적 괴리로 인해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민요의 경우 ‘가사 전달이 안 된다(n=91)’, ‘목소리가 싫다(n=75)’, ‘고음이 싫다(n=66)’와 같이 음악 분석적 반응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대로, 북한의 음악이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는 가사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주의적인 특징으로 인해, 분명한 가사 전달을 위한 높은 음색과 정확한 발음으로, 맑고 선명하면서도 시원한 발성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사 전달보다는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남한의 형식주의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북한의 음악이 다소 어색하고 거북하게 들린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계몽기 가요의 경우에서도 정서적 반응에서는 ‘재미없다(n=83)’, ‘짜증이 난다(n=51)’와 같은 부정적 반응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겠으나, 선행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음악적 선호도는 사회문화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최진호, 2009). 실제로 남과 북이 나누어진지 60년 이상이 흐른 것을 감안하면, 60년 간 남한 학생들의 음악적 배경과 훈련은 계몽기 가요가 나오던 시기와는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남한의 젊은 학생들이 즐기는 음악은 계몽기 시대의 가요나 민요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진호(2009)가 밝힌 것처럼 학생들의 음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신이 타고난 인종적 민족적 배경보다는, 현재 처해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라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북한 음악을 남

한 음악교육과정에 수용할 때, 남북한이 공유하는 음악이라는 이유만으로 계몽기 가요나 신민요 같은 곡을 선택하기 보다는, 기악음악과 같이 남한 학생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사회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곡들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결과가 북한음악을 이해하고, 남한 교과과정에 수용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민지 (2008).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한의 음악교육 연구: 음악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부 (2015).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2].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2014).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권오성, 고방자, 강영애, 백일형, 한영숙, 이윤정, 김현경, 송민혜, 김지연, 최유이, 이수연, 송은도 (2001). **북한음악의 이모저모**. 서울: 민속원.
- 김문환 (1990). **북한의 예술**. 서울: 을유문화사.
- 김미향 (2004). 청소년의 감각추구 동기와 대중음악 선호와의 관련성 조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김연정 (2000). 템포와 소리크기를 중심으로 한 자극성 음악과 침체성 음악에 대한 청소년의 선호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윤수 (2003). 중학생의 북한 관심과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김정일 (1992). **음악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민경찬 (2000). 북한음악의 새로운 동향. **논문집**, 3, 149-177.
- 민경훈 (2009). 다문화 교육으로서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역할. **예술교육연구**, 7(1), 93-111.
- 백하나 (2008). 청소년들의 북한사람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성태제, 시기자 (2010).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양종모 (2000). 학교에서 북한음악 수용의 원칙과 단계. **KICE교육기초연구**, 105-126.
- 유지인 (2006). 남북한 음악교육의 동질성 회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도식 (2001). 통일을 대비한 음악교육의 방향: 북한 음악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藝術과教育**, 7, 37-53.
- 이소영 (2009). 해방 후 북한의 신민요. **한국음악연구**, 45, 305-338.
- 이영애 (2010). 4~5세 유아의 음악 장르별 선호도. **幼兒教育學論集**, 14(5), 79-98.
- 이정우 (2008). 청소년의 통일인식과 바람직한 학교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주 (2006). **북한음악과 주체철학**. 서울:민속원
- 장기범 (2003). 북한 음악과 음악교육에 대한 이해. **음악교육공학**, 2(1), 58-73.
- 정은미 (2010). '이중적'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의 '북한효과'. Paper presented at the 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조은혜 (2005). 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음악교육연구 : 중학교 음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진호 (2009). 한국과 미국 내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음악에 대한 선호도 조사. **음악교육공학**, 8, 183-195.
- 최진호 (2010a). 음악대학원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 음악선호도와와의 관계. **음악교육공학**, 10, 81-94
- 최진호 (2010b). 음악교육전공 대학원생들의 교육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체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음악교육연구**, 38, 149-171
- 통일부통일교육원 (2010). **통일교육 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한상우 (1989). **북한음악의 실상과 허상**. 서울: 신원문화사.
- 한희정 (2003). 통일 대비 음악교육을 위한 북한음악의 이해: 민요와 개량악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준연, 신대철, 권도희, 성기련 (2002). **북한의 전통음악**.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Teo, T., Hargreaves, D. J., & Lee, J. (2008). Musical preference, identification, and familiarity: A multicultural comparison of secondary students from Singapore and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6(1), 18-32.

ABSTRACT

Analysis of North Korean Music Preference for Middle School Music Class

Lee, Sung-Hyun · Choi, Jin-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preference and response of the 7th graders in South Korea (n = 194) on North Korean music in order to adapt the North Korean music in school music curriculum more eff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reference of the 7th graders for North Korea music was found to be higher when their attitudes toward Korean unification were positive. Secondly, the 7th graders showed the highest preference on instrumental music followed by Life Gayo, New Folk Songs, and Enlightenment Songs respectably. Thirdly, from the qualitative responses to North Korean music preferences, familiarity of music was the main reason to exhibit higher preference on the instrumental music and Life Gayo. Lastly, New Folk Songs and Enlightenment Songs had lower preference and many negative responses because 7th graders did not feel comfortable on unique vocal techniques of North Korean music and sociocultural divergence on the lyrics of the music.

Key words: music preference, North Korean music, music education, middle school student

투고일: 2월 28일, 심사(수정): 4월 7일(4월 11일) 게재확정일: 4월 25일